
-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충청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I . 총 평		1
II . 주요 토론내용		2
① 주제발표(1인)		2
② 지정토론(3인)		4
③ 종합토론		7
④ 청중토론		9
⑤ 마무리 말씀		9
III . 토론회 과제 및 결론		10
IV . 후속조치		

-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 -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

-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 관련 의정토론회 개최 결과임
⇒ 충남 인문예술 발전의 여러 장애 요소들을 파악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향후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방안 모색

〈 토론회 개요 〉

- (때 · 곳) 2023. 8. 18.(금) 15:00~17:00 / 충청남도의회 회의실(303호)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
- (참 석) 70명(도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I 총 평

- ❖ 금번 토론회는 도민,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 70여 명이 참여하여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 충남의 문화자산은 풍부하였으나, 그동안 문화자산의 활용에 있어 아쉬움이 많아, 향후 선택과 집중을 통한 분야별 문화자산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고,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과의 협업시스템의 강화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의정토론회를 계기로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과 관련한 법제화나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고, 인문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인 추진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하였음.
- ⇒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공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함.

<아쉬운점 또는 보완사항 >

- ▶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 관련 공무원, 민간 인문예술인의 의견을 또한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어, 향후 의정토론회 진행시 관련 공무원, 민간 인문예술인이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임.

II

주요 토론내용

1 주제발표(1인)

《신정근(성균관대학교 교수)》

1. 세계적 성공과 지역적 성공

- 천안은 호두과자로 유명한데, 천안 호두의 전래를 살펴보면 천안 호두는 고려 충렬왕 16(1290)년 고흥군 출신 류청신(柳淸臣)이 원나라로부터 열매와 묘목을 가져와 광덕면에 심으면서 재배가 시작되었음. 현재 천안은 국내 생산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국내 호두의 최대 주산지임.
- 그러나, 천안과 고흥의 관계나 천안과 류청신 후손의 관계 등 천안호두의 명성을 있게 한 유래와 관련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임.
- 독일의 호두까기 인형과 같은 세계적인 상품에 비하여 우리 천안의 호두까기는 너무나도 실용적인 측면의 모습을 하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세계적 성공과 지역적 성공을 비교하며, 향후의 발전 방안을 고민해야 함.

2. 충남 차원(전체)과 지자체 차원(부분)

- 이제 충남의 문화자산의 활용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함. ‘쇼핑몰 시대’에 부합하는 문화자산의 활용 전략이 요청되는데, 문화관광과 체험에서 맛집, 숙박과 교통까지 토털서비스 체제 구축

을 하여 만족도 제고, 삶의 질 향상, 재방문율을 증대시켜 나가야 함.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자산의 시·군 독자적 운용과 도 차원의 통합적 기능을 모색해야 함.

3. 충청남도 문화자산의 유형

- 충남은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충남의 풍부한 문화자산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활용하는 ‘6벨트론’을 주장하고 싶음. ① 백제 벨트, ② 실학 벨트, ③ 예술 벨트, ④ 항일 벨트, ⑤ 종교 벨트, ⑥ 휴양 벨트를 엮는 ‘6벨트론’이 필요함. 이러한 ‘6벨트론’에 종오소호(從吾所好)*라는 논어의 구절을 접목하여 문화자산의 활용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함.

*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름을 이르는 말

- 지역의 숨겨진 문화자산을 발굴하고, 발굴 이후 가치에 재발견을 하는 선양이 필요하며, 또한 명품화를 시켜나가야 함.

4. ‘6벨트론’의 구상

- 충남 문화자산의 바탕이 되는 ① 백제 벨트에서는 백제문화단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을 모색하고, 대백제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해야 함.
- 현실 개혁을 통한 미래의 구상을 시도하였던 ② 실학 벨트에서는 홍대용(천안), 박지원(당진, 면천군수), 유득공(부여 현감), 정약용(청양, 금정 찰방), 박제가(공주, 이인 도찰방) 등 우리나라 실학의 대두가 되는 인물 자산을 고증을 통하여 활용해야 함.
- 탈속의 경험으로 심미의 경계에 이르려 했던 ③ 예술 벨트에서는 김부용(천안), 전통과 현대를 접목했던 한성준/한영숙(홍성)과 이응노(홍성) 등의 인물을 활용해야 함.
- ④ 항일 벨트에서는 최익현(청양), 유관순(천안), 한용운(홍성), 윤봉길(예산) 등 항일 인물을 활용해야 함.

- 순교 수행으로 대표되는 ⑤ **종교 벨트**에서는 홍주순교성지 순례길(홍성), 해미순교성지(서산), 김대건 솔피성지(당진) 등의 자산을 활용해야 함.
- 여가 활용으로 심신 정화를 이룰 수 있는 ⑥ **휴양 벨트**에서는 칠갑산 천문대 스타파크(청양), 신두리 해안사구(태안) 등의 휴양 자산을 활용해야 함.

5. 과제

- 충남의 문화자산을 총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획자의 양성과 개별 문화자산을 넘어 벨트의 연계성을 소화할 수 있는 해설사의 양성이 필요하고, 도와 외부기관의 협업 또한 요청됨.
- 지역적 축제와 도차원의 축제를 구분하고, 도차원의 축제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함.

② 지정토론(3인)

① 김현식(前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 오늘 주제 발표가 시대적 요구인 인문예술 융합과 충남의 전략에 시사점을 주었다고 생각하며, ‘호두까기 인형’ 사례로 스토리 기반의 예술, 종교와 계절이 결합된 마케팅 성공사례를 보여주신 부분에 깊이 공감함. 또한 특히 지역별, 유형별 문화자산의 ‘6벨트론’ 분류와 ‘선택과 집중’의 전략 제안에 동의함.
- 먼저 ‘충남문화르네상스’ 비전부터 확립, 공유해야 함. 향후 비전이 분명해야 정책전략,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임.
 - 가야산과 내포, 계룡산과 금강은 인문예술 스토리의 보물창고인데, 충남에서 한국 인문예술 중심성 회복을 통하여, 한국 철학, 종교, 예술의 시원성과 위대성을 재발견, 재평가,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이제는 금강이다’ 라는 슬로건에 맞게 인문예술 중흥과 충청통합을 이루어 메가시티 문화관광사업을 주도해야 함.
- 주도체 및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하는데, 도 집행부 내에 전담 컨트롤 타워와 문화관광재단 등의 자율성 신장 및 예산 확대가 필요함. 또한 유관기관 및 민간 부문 협업시스템의 강화가 매우 중요함.
- 투트랙 추진 전략이 필요함. 시군 단위 인문예술 융합사업 발굴, 주민주도 초기사업화의 측면에서 기존 사업 성과와 한계 분석, 업그레이드 방안 모색을 진행하는 한편, 신규 대형 프로젝트 개발 육성의 측면에서 시군 협력, 글로벌 지향, 국비 확보, 국내외 민간 투자를 이루어 나아가야 함.

② 이동수(상명대학교 교수)

- 충남 금산군 외 9개 지역의 인구감소가 심각한데, 23년 3월 문화로 여는 지방시대 지역문화 정책 추진전략에서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공모사업 가점 부여 등 우대 규정이 신설되어 충남 인문예술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충남 인문예술 콘텐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충남의 많은 마을을 역사적 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교육적 기능을 가진 마을로 탈바꿈해야 함.
- ‘6벨트론’ (백제, 실학, 예술, 항일, 종교, 휴양)의 휴양 벨트에서 웰니스라는 접목이 가능한 필수 요소가 있음. 웰니스란 육체적, 정신적, 감성적, 사회적, 지적 영역에서의 최적 상태를 추구하는 것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과 건강하고 활기찬 활동을 위한 인간의 상태와 행위, 노력을 포괄하는 개념을 의미함. 홍성군에서는 에덴힐스 뷰티와 힐링파트가 웰니스 관광지로 재선정된 바 있음.
- 또한 도내 문화, 예술 기획자 양성 대학교 학생들이 도내에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의 제공이 필요함.

- 마지막으로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인문예술 콘텐츠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자원과 타 산업의 연계를 통한 확장이 필요함.

③ 이주영(고려대학교 교수)

- ‘지역을 담되 지역을 뛰어넘는’ 문화콘텐츠가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음. 충남이라는 지역성, 동시대와 호흡하는 현대성, 지역과 전국을 넘어 세계로 이어질 수 있는 확장성 등 제반 특질이 수용되는 것이 중요함.
 - 제시한 ‘문화자산의 발굴, 선양, 명품화’로 이어지는 단계별 전략은 주효하리라 봄. 결국엔 지역의 정체성(identity)이 관건임. 충남 각 지자체마다의 고유한 자산이 결국 콘텐츠화되어 유무형의 상품성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고, 여기에는 동일성과 변별력이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제시한 충남의 문화자산 유형은 통상적으로 많이 언급되고, 적용되는 소스임. 즉 인물, 역사, 사건, 공간, 축제 등 다양함.
 - 천안을 위시한 충남에서는 지역 산물을 특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이어져야 할 것임. 공연으로 연결되려면 무대예술이 지니는 메커니즘 특성상, 스토리, 음악(작곡), 무대, 연출, 의상 등 다양한 공연 요소를 고민하며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할 것임.
 - 결국 지역의 문화원형은 문화자산의 보고(寶庫)임. 어떠한 콘셉트 하에 개발, 특화시켜 공감대를 높일 것인지가 관건임.
- ‘convergence’, ‘fusion’ 등으로 불리는 융합은 현 시대를 말하는 키워드 중 하나임. 결합은 상승효과임. 잘 만나야 되고, 잘 만날 수 있도록 해야 함. 더 나아가 상승이라는 중국의 단계까지 도달해야 함. 그런 측면에서 물리적 결합을 넘어 완전히 융해된 화학적 결합은 필요충분조건임.

- 인문예술은 인문과 예술이라는 범주의 결합이기도 하지만 하나로 연결돼 각자의 속성이 표현매체 속에서 유유히 강을 건너갈 때 그 힘이 생김. 철학(哲學)이 근간임. 철학에 기반해 중심을 잘 잡고, 다양하게 풀어가는 방안이 필요함.
- 인공지능(AI) 시대이기도 함.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 시대, ‘사이버 시대(Cyber age)’를 살고 있는 요즘임. ‘디지털’, ‘디지털문화’, ‘디지털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라는 각각의 용어에도 알 수 있듯 지역 문화자산의 시대적 활용을 위해서는 가상공간, 가상지역, 가상콘텐츠, 가상인물 등 가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작업 또한 경주해야 될 요소임.

③ 종합토론(질의답변)

〈질문〉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그리고 문화자산의 활용을 위해선 현황 파악이 우선 중요할 것으로 생각됨. 김현식 전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충남을 대표하는 인문예술 자산이 무엇인지 궁금함.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답변〉

본인이 생각하는 충남의 위대한 역사문화 자산은 독립기념관과 계룡산임. 독립기념관이 있는 곳이 임시정부 초대 의정원장을 지내신 이동녕 선생의 고향인데, 이동녕 선생이 의정원장을 하실 당시에 국기와 국화를 지정하셨음.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들은 태극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임. 나라 정체성의 근본 문제가 여기에 있음. 그래서 천안 독립기념관을 대한과 태극기 등 나라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교육의 장으로 만드는 것을 본인은 제안함. 또 계룡산의 경우는 개벽 철학과 정역으로 대표되는데, 주역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의 많은 부분을 관통함. 이러한 우

리의 철학을 세계에 이야기할 때 세계인들은 감동함. 그래서 본인이 르네상스, 충남 인문예술의 재발견, 재창조를 주장하는 것임. 이를 위해선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절실함.

【김현식 前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질문〉

본인은 이러한 발전을 위해서는 법제화와 제도적 장치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그래서 그 가능성과 분위기를 의원님께 묻고 싶음.

【이주영 고려대학교 교수】

〈답변〉

충남에는 문화자산이 풍부하다고 함. 그러나 전국적으로 보면 충남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없는 것 같음. 그래서 아직까지 발굴하지 못한 고귀한 자산이 없을까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이번 의정토론회를 계획하게 되었음. 그리고 관련된 조례도 생각하고 있고,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부와도 상의중에 있음.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열어 충남도만의 문화자산을 발굴, 브랜드화해 나가겠음.

【박정수 충청남도의회 의원】

〈의견〉

법제화가 되면 의무적인 시행이 가능할 텐데, 그럼 충남에서는 어느 차원에서 접근할 것인가가 문제임. 그리고 충남에서 선제적으로 법제화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중앙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함. 오늘과 같은 논의를 넘어 현실에서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법제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에 깊이 동의함. 앞으로도 충남의 인문예술 자원이 정치적 상황 등의 외부적인 상황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발굴, 선양, 명품화되었으면 함.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교수】

4 청중토론[질의답변]

〈의견〉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법 제화, 제도화 작업의 출발과 독심있는 진행임. 앞으로 그 진행과 실천에 노력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병진 충남 민예총 이사장】

5 마무리 말씀

- 그동안의 충남의 여러 문화자산은 풍부하다고는 알려져 있었으나, 선양화, 명품화 작업에 부족함이 많았다고 생각함.
- 앞으로 충남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귀한 문화자산을 발굴해야 하고, 오늘 발제에서 나온 선택과 집중을 활용한 ‘6벨트론’과 같은 추진전략의 활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외부기관과의 협업의 노력을 그치지 말아야겠음.
- 오늘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의견들은 향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하고 또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 충청남도의회 의원】

〈과 제〉

- 충남에서 아직 발굴되지 않은 문화자산의 파악
- 충남 인문예술 융합과 발전의 장애 요소에 대한 구체적 파악
- 충남의 풍부한 인문예술 및 문화자산의 활용방안 제시
- 충남 인문예술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제시
-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

〈결 과〉

- 우리나라의 인문예술 및 철학은 세계에 내놓아도 우수한 수준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충남은 인문예술의 재발견, 재창조를 이루는 르네상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이 절실한 시점임.
- 충남 인문예술이 앞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선 법제화나 제도적 장치가 요청되는데, 충남이 선제적으로 법제화를 시작한다면 중앙으로 충분히 확산할 가능성이 있음.
- 충남 인문예술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추진의 노력임.

IV

후속조치 (행정·협조사항)

- 토론된 내용(의견)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출 과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관련부서) 충청남도 문화정책과

- 붙임 1. 의정토론회 사진 1부.
2. 의정토론회 언론보도 현황 1식. 끝.



2023년 08월 21일 (월)

지역 06면

大田日報

“충남 인문예술 비전 확립해야”

충남도의회, 의정토론회 진행

충남도의회가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는 18일 의회 회의실에서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 의정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천안9·국민의힘)이 좌장을 맡고, 신정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충남 문화자산의 활용방안’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 김현식 전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동수 상명대학교 교수, 이주영 고려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신정근 교수는 세계적인 관광 상품과 지역 상품의 사례를 비교하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충남 문화자산의 발굴, 선양 및 명품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현식 전 대표이사는 “충남의 인문예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앞으로의 충남 문화에 대한 비전을 확립·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정수 의원은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인문예술 발전의 장애 요소들을 파악하고, 향후 인문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권영 기자

109 X 95 mm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의정토론회가 지난 18일 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인문예술 발전 '소통의 장' 마련

박정수 의원 "장애요소 파악·발전 위한 방안 제시"

충남도의회가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을 위해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20일 도의회에 따르면 '충남 인문예술의 융합과 발전 방안 모색'을 주제로한 의정토론회가 지난 18일 의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박정수 의원이 좌

장을 맡고, 신정근 교수(성균관대학교)가 '충남 문화자산의 활용방안'라는 내용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김현식 前 충남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이동수 교수(상명대학교), 이주영 교수(고려대학교)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박정수 의원은 "그동안 충남은 풍부한 문화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그에 걸맞은 발굴 및 활용에 아쉬움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의정토론회를 통해 충남의 인문예술 발전의 장애 요소를 파악하고, 향후 인문예술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내포/김기룡 기자 press@shinailbo.co.kr

175 X 158 mm